

“응급·전문성 갖춘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량 키울것”

김형준 신임 광주보훈병원장

호남권 ‘보훈 의료’ 빈틈없이 책임
소통 중심 경영으로 조직문화 개선
진단부터 치료이후까지 폭넓게 지원



해 국가가 책임
져야 할 책무라
고 생각한다.
앞으로 보훈
병원 운영은 소
통을 바탕으로
한 안정적인 조
직 운영과 상생
과 협력을 통한
지역 필수의료
역할 강화라는
두 가지 방향에
초점을 두고자
한다. 이를 통
해 보훈가족과
지역주민이 신
뢰할 수 있는

병원으로 광주보훈병원을 만들어 가겠다.
-향후 3년 경영 기조로 소통경영·상생경영을 제
시했다. 이 두 가지 기조를 통해 병원 운영과 조직
전반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가.
▲앞으로 광주보훈병원은 소통 중심의 경영을
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. 직원은
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, 보훈가족은 의료서비스
에 만족하며, 지역사회는 우리 병원을 신뢰할 수
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. 그러나 의료환경은
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. 이제는 우
리가 그동안 관성처럼 받아들이던 ‘당연한 일’
들 속에서 벗어나,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이 실제로
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. 변
화는 구조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.
나는 그 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. 병원장이

앞에서 끌고 가는 변화가 아니라, 구성원 여러분
의 결에서 호흡을 맞추며 변화의 완주를 돕는 페이스
메이커가 되고자 한다. 이와 함께 병원 운영 전
반에 상생과 협력 경영을 강화해, 지역완결형 필
수의료 수행 역량을 높이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
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.
-광주보훈병원은 40여 년간 보훈의료의 중추
역할을 해왔다. 지금 시점에서 보훈의료의 본질과
사명은 무엇인가.
▲보훈의료의 본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
신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의료로
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. 광주보훈병원의 가
장 중요한 사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집 가
까운 곳에서, 제때,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
을 수 있도록 호남권 보훈의료를 빈틈없이 책임지
는 것이다. 이 사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 나
가야 할 가치이다.
-광주보훈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어
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,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
전략은 무엇인가.
▲지역의료생태계구축을 위해 권역책임의료
기관,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
으로 유지하고, 광주보훈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
관으로서 지역 내 공공의료 협력이 원활히 이뤄
질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
한다. 취약한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확
립, 지역 응급의료 인력공유 플랫폼 구축, 지역
응급의료 네트워크 플랫폼 등 이러한 공공의료거
버넌스 강화를 위한 중증환자 전원이나 공동 진
료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
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고자
한다.

-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병원이 중점적으로
보강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.
▲광주보훈병원은 지역 내에서 반드시 대응이
필요한 응급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필수의료 분
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. 심
뇌혈관질환과 감염병과 같이 신속한 판단과 체계
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지역 안에서 진료
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체계와 의료자원
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.
-화순전남대병원장과 혈액내과 전문의로서의
경험이 광주보훈병원 운영에 어떤 강점으로 작용
할 것이라 보는가.
▲화순전남대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느낀
가장 큰 교훈은 의료의 질만큼이나 환자가 병원을
신뢰하게 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이었다. 특히
환자들은 치료 결과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준다
는 확신을 통해 병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체감했
다. 혈액내과 전문의로 중증 환자를 오래 진료해
온 경험 역시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
속성과 책임의 관점으로 병원 운영을 바라볼 수 있
게 해 주었다. 이러한 경험은 광주보훈병원을 운
영하는 데 분명한 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.
-마지막으로 보훈가족과 지역 주민, 그리고 병
원 구성원들에게 병원장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메
시지가 있다면.
▲광주보훈병원은 보훈의료의 품격을 높이는
동시에, 지역사회가 믿고 의지하는 공공의료의 본
보기가 되어야 한다.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
다. 구성원 한 명, 한 명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
때 변화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생각한다. 병원
장으로서 그 책임의 중심에서 서서 여러분 모두와 함
께하겠다. /서승원 기자 swseo@kwangju.co.kr

‘문신 시술 안전교육’ 큰 호응 의료·문신업 등 150여명 참석



30여 년만에 의료인 아닌 자격 있는 비의료인도
가능하게 된 문신 시술에 대한 교육 열기가 광주에
서 뜨겁게 달아올랐다.
대한문신중앙회 주최, 대한의사협회 주관의 ‘제
69회 문신사 위생·안전교육’이 지난 23일 서정성
대한의사협회 부회장·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
을 비롯한 의료·문신업·학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
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(무등홀)에서 열렸다. 특
히 눈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·전남은 물론
서울·부산·전북의 문신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하
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. <사진>
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대법원이 ‘문신 시술
은 의료행위’라는 판정에 따라 의료인만이 가능했
다가, 33년만인 지난해 9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
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7년 10월29일부터
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들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.
이날 교육은 4부로 나뉘어 오후 2시부터 4시간
동안 진행됐다. 교육 내용은 ▲소독과 멸균의 개
념 및 적용 방법(지승규 내과 전문의) ▲감염의
이해(한시현 단국대병원 간호사) ▲시술 안전 및
위생관리(위희정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) ▲현
장 실무 중심 안전·작업환경 관리(박화선 대한문
신사중앙회 호남지회장)이다.
이날 서정성 부회장은 “이번 교육은 의료계와 문
신업계가 협력해 시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
있는 매우 수준 높고 유익한 내용”이라며 “앞으로
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안전 기준
과 교육 체계 정착에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겠다”고
밝혔다. /서승원 기자 swseo@kwangju.co.kr

“‘NEXT 120’ 가장 신뢰받고 따뜻한 병원 되도록 최선”

이승욱 광주기독병원장 취임 2주년

의료혁신·선교적 사명 다한 120년
공공의료·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
진료·연구·행정 AI스마트병원 도약



-올해의 비
전으로 제시
한 ‘NEXT
120’의 핵심
은 무엇인가.
▲2026년
은 ‘NEXT
120, 일어나
빛을 발하는
광 주 기 독 병
원’이라는 비
전 아래 본격
적인 도약의
원년이 될 것
이다. 핵심 방
향은 네 가지
이다. 첫째, 지
료·연구·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 기반 스마
트 병원으로 도약하는 것이다. 기술은 목적이 아

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. 둘째, 공
공의료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강화이다. 중증·
응급 진료역량과 감염관리, 팬데믹 대응체계를 고
도화해 지역 의료의 최종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
행하겠다. 셋째, 카딩턴라파기념관을 중심으로 한
특성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선교병원으로 도약하
겠다. 넷째,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바탕으로
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, 전 직원이 함께 사
랑의 의료를 실천하겠다.
-‘세계 최고의 선교병원’을 목표로 제시한 의미
와 방향은 무엇인가.
▲카딩턴라파기념관을 중심으로 선교적 정체성
을 더욱 분명히 하고, 국제 연구 협력과 우수 인재
양성, 첨단 의료역량 강화를 통해 뉴욕장로교병원
(NewYork-Presbyterian Hospital)과 같은 세
계적 수준의 글로벌 선교병원을 지향하고자 한다.
-공공의료 측면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강화할 계
획인가.
▲중증·응급·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

편, 평상시에는 지역 병원과 역할을 분담하며 함께
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. 공공의료는 선택
이 아니라 광주기독병원의 변함없는 사명이다.
-‘2040 비전’과 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,
내용과 추진 방향은.
▲2026년은 ‘NEXT 120’ 장기 발전의 원년으
로, 2040 비전을 향한 3주기 계획을 본격적으로
시작하는 해이다. 2026-2030년은 기반 구축기,
2031-2035년은 도약·확장기, 2036-2040년은 완
성·확산기로 설정했다. 최종 목표는 ‘대한민국
TOP 50 치료중심 종합병원’으로, 글로벌 연구 리
더십 확보, 혁신적 치료 인프라 구축, 의료선교적
사회책임 완수를 3대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.
-마지막으로 직원과 지역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
시지는 무엇인가.
▲‘NEXT 120’의 여정에 직원과 지역사회가 함
께해 주길 바란다. 앞으로도 광주기독병원이 가장
신뢰받는 병원, 가장 따뜻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
다하겠다. /서승원 기자 swseo@kwangju.co.kr

KS병원 ‘긴급치료병상’ 확충 신종감염병 고위험군 환자 치료

광주지역 KS병원이 신종감염병 등의 확산에 대
비해 ‘긴급치료병상’ 확충 사업을 마무리하고, 지
난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. 보건복지부 지
정 긴급치료병상 운영은 광주지역 종합병원으로는
KS병원이 최초 사례다.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에
는 일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실로 운영되다가 신종
감염병 발생 등 국가 위기 시에는 음압격리병상으
로 전환해 고위험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게 된다.
KS병원은 준중증 병상 6개와 투석환자를 위한
특수병상 7개 등 총 13개 병상의 긴급치료병상을
확보하고 운영한다. KS병원은 지난 2023년 보건
복지부의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 대
상자로 선정돼 증축공사 등을 진행해 왔다.
/서승원 기자 swseo@kwangju.co.kr



wilo

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

강력한 성능! 합리적 가격!
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

전국 132개 서비스망